



삼일회계법인

Ahead of 'APEC 2025 경주'

글로벌 협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October 2025



들어가며

“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국경을 넘는 대화와 연결이 미래를 만든다.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2025년 10월, 경주는 단순한 역사 도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 무대로 변모한다. APEC 정상회의와 CEO 써밋이 동시에 열리는 이곳에서, 세계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AI 혁신,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의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이 된다.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으로서,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한다. 이 주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단어의 나열이 아니다. 연결은 무역과 투자, 혁신은 AI와 디지털 생태계, 번영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키워드는, 지금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기회의 교차점에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는 APEC 2025의 핵심 무대인 정상회의와 CEO 써밋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통상 협상, 산업별 전략적 시사점, 그리고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중 정상 간 6년 만의 회담 가능성과 AI·반도체·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협력 논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기업의 투자 전략과 기술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PEC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세계 GDP의 61.4%,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향은, 곧 글로벌 규범의 기준이 된다. 기업에게 APEC은 '회의체'가 아니라 '미래 전략의 나침반'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함께 읽어보는 여정이다.

그리고 한 가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단지 '회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회의실 밖에서도, 불국사와 석굴암 사이에서도, 협력과 혁신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왜냐하면, 미래는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번영은 연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Key Message

'APEC 2025' 개요

행사명	2025 APEC 대한민국 정상회의 (APEC 2025 KOREA)
주요 행사 일정	정상회의: 10월 31일~11월 1일 (경주) CEO 써밋: 10월 29일~10월 31일 (경주)
공식 주제 및 의제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 디지털 전환, AI,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 등이 핵심의제



'APEC 2025'에서 기업이 쟁여야 할 핵심 이슈

1 주요국 간 통상 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투자 전략 재편

APEC 기간 중 주요국 간 개별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한국, 미국-중국 등 개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핵심 소재 (반도체·배터리·희토류)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 초래

→ 기업은 협상 결과 모니터링해, 수출입 조건, 생산 거점, 투자 전략 조정 필요

2 AI·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글로벌 협력 기회 선점

APEC 21개국 정상회의 및 CEO 써밋

AI, 디지털 혁신이 APEC 2025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한국·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확대가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

→ 기업은 AI·반도체·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투자·기술 교류 등 실질적 협력 방안 구체화

3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모델 혁신

APEC 21개국 정상회의 및 CEO 써밋

APEC 2025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ESS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구축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의 핵심 평가 요소로 보다 더 강조

→ 기업은 탄소중립·순환경 등 글로벌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 고도화하고, 정책·규제 변화에 신속 대응

* 본 자료는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내외 변화로 APEC 2025 참석자 및 주요 행사 내용 등이 행사 전후에도 변화될 수 있어,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들어가며	02
Key Message	03
1. APEC 2025 한눈에 보기	05
참고. APEC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07
2. APEC 2025의 핵심 무대: '정상회의'와 'CEO 써밋'	09
1) 정상회의	10
2) CEO 써밋	15
3. 한국에의 영향 점검	20
4. 결론 및 시사점	21

1. APEC 2025 한 눈에 보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 포럼이다.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여간 각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회의 준비를 주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29일 열릴 **APEC CEO 써밋**은 민간 경제계의 목소리를 각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공식 창구로서,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디지털 경제, AI, 공급망 복원력, 포용적 성장 등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는 글로벌 투자 유치와 함께 **K-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세계와 공유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은 글로벌 정책 흐름과 산업 전략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이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PEC 2025 개요

행사명	2025 APEC 대한민국 정상회의 (APEC 2025 KOREA)
주최	한국 (2025년 의장국)
날짜	정상회의: 10월 31일~11월 1일 CEO써밋: 10월 29일~10월 31일
공식 주제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 디지털 전환, AI,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 등이 핵심의제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장소 및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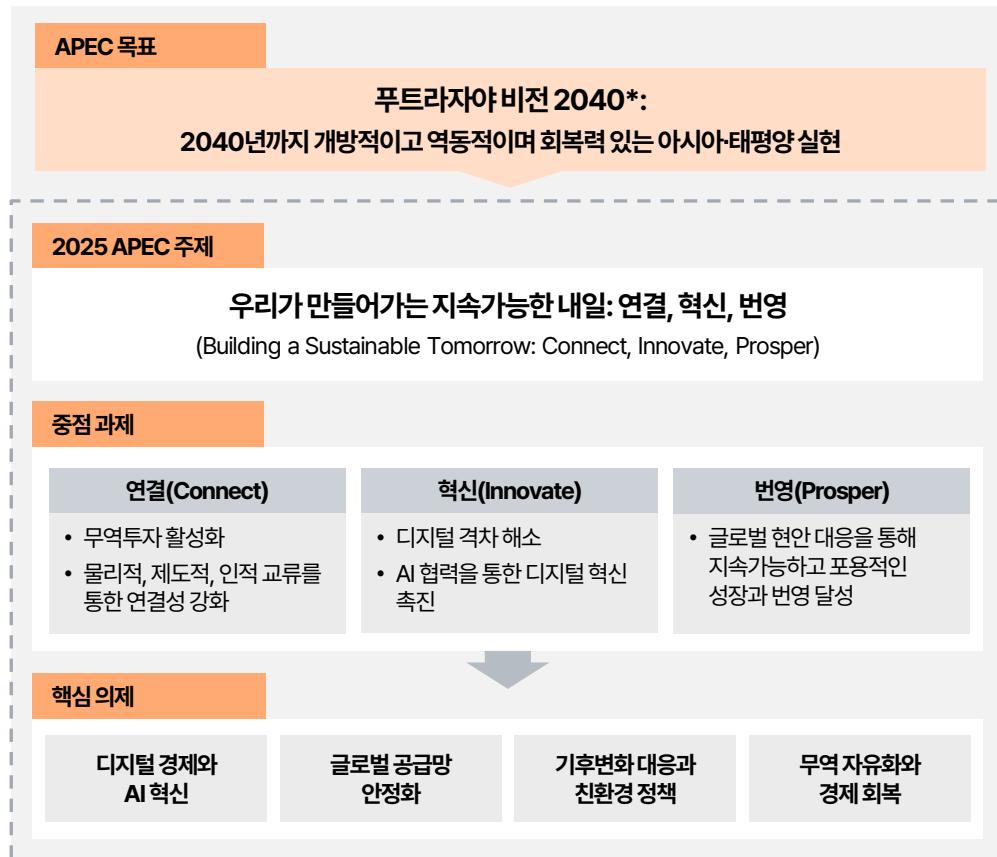


주요 진행 과정 및 일정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AI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공급망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한·미·일·중 정상을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참석해 AI·디지털 규범과 경제 협력 모델을 놓고 전략적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중점 과제) 및 핵심 의제



* APEC이 '20년 채택한 장기 비전으로, '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목표는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통해 달성을 계획임.

주요 참석자

주요 정상 포함 21개국 정상/대표단 참석자 (예정)



이재명 대통령(한국)



트럼프 대통령(미국)



시진핑 주석(중국)



다카이치 총리(일본)

주요 글로벌 테크 리더 참석자 (예정)



젠슨 황 CEO (엔비디아)



맷 가먼 CEO (AWS)



샘 올트먼 CEO (오픈AI)



팀 쿡 CEO (애플)

* 10월 24일 기준으로, 주요 참석자 정리함. 은 참석 가능성 거론 중인 상태임.

참고. APEC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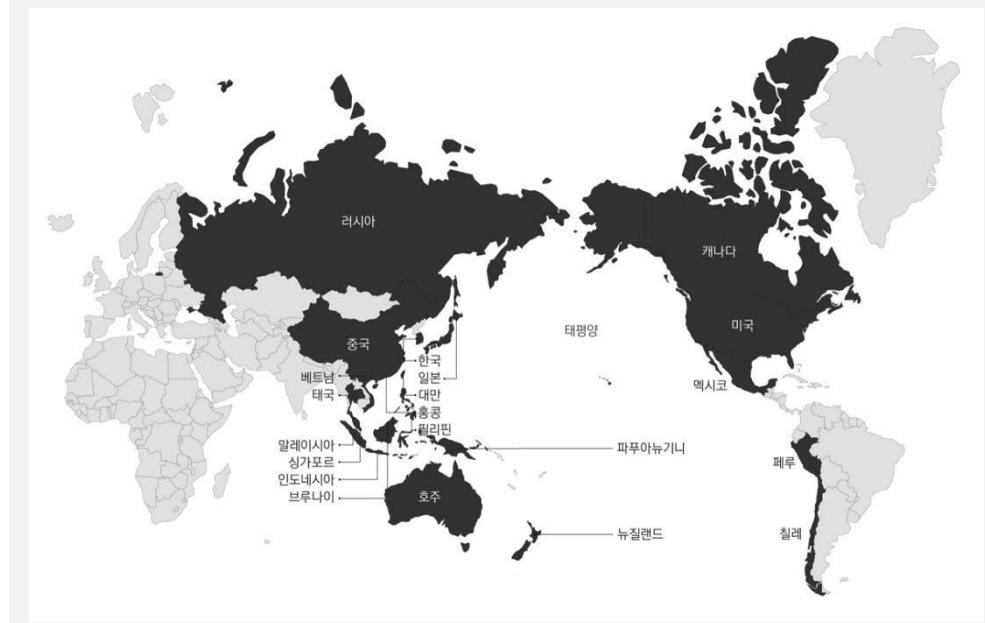
APEC이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89년 호주(캔버라)에서 역내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설립 목적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 협력 강화이며,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현재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ASEAN 주요국, 호주, 러시아, 멕시코 등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APEC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 EU(유럽연합)처럼 폐쇄적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자발적 협력체다. 모든 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합의 기반으로 운영된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의장국이 정상회의, 장관회의, CEO 써밋 등 200여 개 회의를 주관한다.

2025년 APEC 경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은 한국에서의 3번째 개최지이다. 한편, APEC은 2026년 중국, 2027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회원국 (21개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PEC이 중요한 이유?

APEC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협력체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규모와 영향력에 있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61.4%, 교역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 흐름을 주도한다.

이러한 경제적 비중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PEC에서 논의되는 무역·투자 자유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합의는 국제 경제 질서와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내 관세 장벽 완화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망 협력 강화는 제조업·에너지·반도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APEC에서 합의된 디지털 경제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규범은 기업의 혁신 방향과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APEC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글로벌 경제 규범을 조율하고,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다. 이에, 기업과 산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국제 무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게 APEC은 왜 중요할까?

한국에게 APEC은 경제·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다. 한국의 수출의 약 74.7%, 수입의 67.5%가 APEC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며, 해외직접투자 비중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APEC 역내 시장과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 기능이 보다 약화된 상황에서 APEC은 미·중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경제 협력 포럼으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경제 규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창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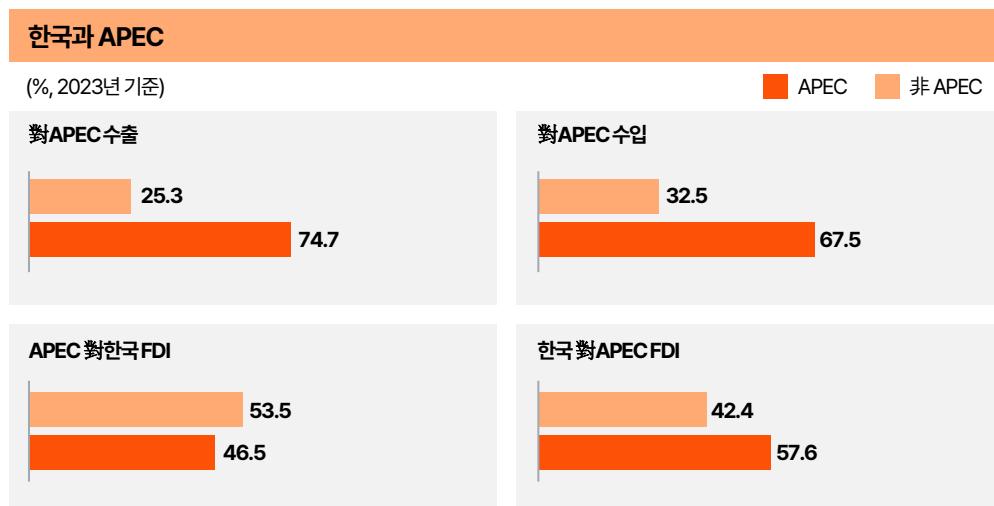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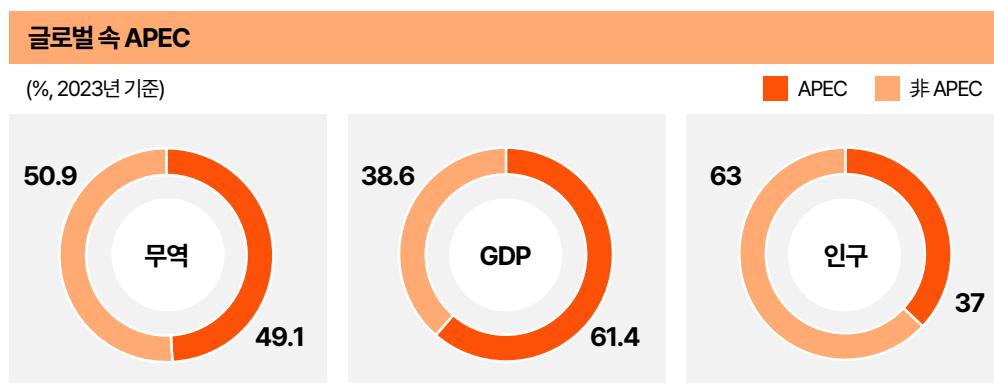
한국이 이러한 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기여와 축적된 신뢰에 있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2005년 부산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1994년)** 중간점검과 함께 부산 로드맵을 수립해 APEC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역내 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근거다.

2025년 한국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IT 등 한국의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실질적 기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이 역내 경제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자유무역 투자 확대를 위해 개방적 지역협력과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 기반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천명한 기본헌장임

** APEC 회원국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목표

APEC 글로벌 경제 영향력



* FDI: 해외직접투자

자료: APEC at Glance

2. APEC 2025의 핵심 무대: ‘정상회의’와 ‘CEO 써밋’

APEC 2025 경주, 기업이 주목해야 할 두 무대

202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와 ‘CEO 써밋’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 APEC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두 무대는 전 세계 기업과 산업계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1 정상회의: 글로벌 규범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10.31~11.1)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여간 300여 차례의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ISOM), 고위관리회의(SOM), 각료회의 등을 통해 ‘연결, 혁신, 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핵심 의제를 정립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협력, 공급망 안정, 기후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각국 정상과 논의하고, ‘경주 선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통상 이슈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APEC은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와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핵심 가치로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 관세 갈등을 확대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크게 혼들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과 협력 방향을 모색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APEC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6년 만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논의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 CEO 써밋: 산업 리더들의 전략적 대화의 장(10.29~10.31)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CEO 써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비즈니스 포럼으로, 글로벌 기업 CEO와 정부 고위 인사가 모여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로 에너지 전환, 디지털 및 AI 혁신, 무역,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중대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퓨처테크 포럼(Future Tech Forum)에서는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산업별 혁신 방안이 논의되며, K-테크 쇼케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에너지 인프라)이 전시된다. 또한 전순 황 CEO(엔비디아), 맷 가먼 CEO(AWS) 등 글로벌 리더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며, AI·반도체·에너지 협력 세션도 열릴 계획이다.

왜 주목해야 하나?

‘정상회의’는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좌우할 정책 시그널을 제시하고, ‘CEO 써밋’은 산업 리더들이 미래 전략을 공유하며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적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두 무대는 APEC의 핵심이자, 정책과 산업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글로벌 경제 질서와 기업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APEC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상회의와 CEO 써밋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의제와 관전 포인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2-1. APEC 2025의 핵심 무대: 정상회의

정상회의 개요

일시	'25.10.31~11.1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중점 과제 (핵심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결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혁신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번영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주요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한국), 트럼프 대통령(미국), 시진핑 주석(중국) 등 21개국 APEC 회원국 정상 또는 대표단

3가지 관전 포인트

이번 APEC 2025 정상회의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주제와 중점과제(핵심 의제): 기업 준비 전략

2)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논의

3) 한국의 산업 전략

이 세가지에 대한 세부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관전 포인트 ①

주제와 중점과제 (핵심의제): 기업 준비 전략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의 개최 1년 여년 전부터 21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ISOM*(비공식 고위관리회의)과 연중 3차례의 SOM***(공식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즉, **APEC의 주제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회원국이 직면한 경제·산업 도전 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된 주제 아래, 각국 정상들은 APEC 정상회의에서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상 선언문에 담는다. 다만, 선언문은 매년 APEC 개최시마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공식 선언문이 발표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부산선언'이 채택되어 자유무역 확대, 보고르 목표 달성, 부산 로드맵, 에너지·보건·안보 협력 등의 핵심 과제가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주제 선정 과정과 정상들의 합의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PEC 주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APEC에서의 합의 사항은 비구속적이지만, 회원국 정책과 규범 형성에 강력한 신호를 제공하기에 기업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을 설계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APEC 2025 주제와 그에 따른 중점과제(핵심 의제)는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ISOM에서 초안이 공개된 후, 3차례의 SOM을 거쳐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APEC 2025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주제 아래 선정된 아래 네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

* ISOM(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회원국 고위 관리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APEC 주제 논의

** SOM(Senior Official Meeting): APEC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 방향을 조율. APEC 정상회의 전 3회 가량 진행

그럼, 이 네 가지 핵심 의제가 APEC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행 의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어떤 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등장 배경 및 APEC 이행 방향	기업 준비 전략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	<p>APEC 2025에서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축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AI 윤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PEC은 신뢰·안전·접근성을 갖춘 디지털 생태계 구축,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전망이다.</p>	<p>향후 APEC 내에서는 책임 있는 AI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AI 중심 경제 활성화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대비해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략과 AI 책임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AI를 통한 산업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적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p>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p>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이후 공급망 불안정은 기업의 납기·원가·시장 접근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APEC은 역내 연결성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통관 간소화, 물류 디지털화, 비즈니스 이동성 확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p>	<p>향후 APEC 내에서는 공급망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다중 소싱·허브 다각화 등이나 공급망 디지털화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탄소·인권 기준을 반영한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p>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규제 뿐 아니라 투자·금융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APEC은 청정에너지 확대, 전력망 현대화, AI 기반 수요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녹색성장과 순환경 경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p>	<p>향후 APEC 내에서는 기후 리스크 대응과 친환경 정책 이행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재생에너지·수소·ESS 투자를 통해 비용·공급 안정·ESG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제품 LCA·스코프3 등의 관리로 규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p>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	<p>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시장 접근과 규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APEC은 WTO 체제 복원과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논의 재점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for Trade(통관·규제 자동화) 등을 통해 자유화와 경제 회복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p>	<p>향후 APEC 내에서는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 조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전자통관·원산지 자동화로 무역원활화에 대응하고, AI 기반 규제 모니터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역내 생산 재배치와 서비스 수출 전략을 조정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p>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 목표

관전 포인트 ②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논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곳은 단연 미국과 한·중·일 정상 간의 개별 통상 논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재집권 후,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며 주요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인 중국, 일본, 한국과 각각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자 간 협상이 APEC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기업의 원가 구조, 수출 경쟁력,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APEC 2025 방한 일정 계획



*'25년 10월 24일자 기준으로 정리함. 통상 갈등 이슈 등으로 국가간 정상회담은 최소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 필요함.

APEC 2025에서 미국과 주요국 정상회담 전망

미국 vs. 중국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로 다시 격화되고 있다. 양국은 현재 11월 10일까지 2차 관세 휴전 상태지만, 중국이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강화하고 반도체·AI 연구개발용 희토류까지 정부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기존 평균 55% 수준의 관세율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담이자 6년 만의 정상 간 회동으로, **관세 완화 여부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APEC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관세 완화 여부
-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 AI·반도체·소프트웨어 규제 완화 가능성
-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시장 안정화 등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중과 무역 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세 정책과 희토류 규제 변화가 원가 구조, 생산 계획, 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미국 vs.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2025을 위한 방한 전, 일본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통상 협력과 안보 연계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구조에서 자동차·부품,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비중이 높아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통상 협력 후속 조치: 자동차·부품·배터리 관련 세부 협력 방안, 5500억 달러 미국 투자 관련 (투자 집행 방식, 우선순위 산업 확정 등)**
- **안보 연계 강화: 미·일 동맹의 억지력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전략**
-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및 공동 R&D 추진**
- **기술·에너지 협력: AI·양자컴퓨팅, LNG·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확대**

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AI·반도체·배터리 관련 규제나 표준이 미·일 협의에서 선제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일본이 확보하는 관세·투자 조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전략과 규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공동 R&D, 소재·부품 협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vs. 한국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은 관세 조정과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협상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펀드(현금 선불) 조성을 요구하며 한국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우리가 받는 돈이자 선불”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인하를 위한 대가임을 최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APEC 계기로 진행될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건 세부 논의 (현금 비중 조율 등)**
-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 품목 관세 조정 및 최혜국 대우 명문화**
-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반도체·AI·방산 분야 공동 프로젝트**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를 추가적으로 예고한 상황이며, 반도체·핵심 광물로 관세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전략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의약품·반도체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하고,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와 현지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AI·반도체 관련 규제와 표준이 미·한 협의에서 선제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내부 준수 체계를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관전 포인트 ③

한국의 산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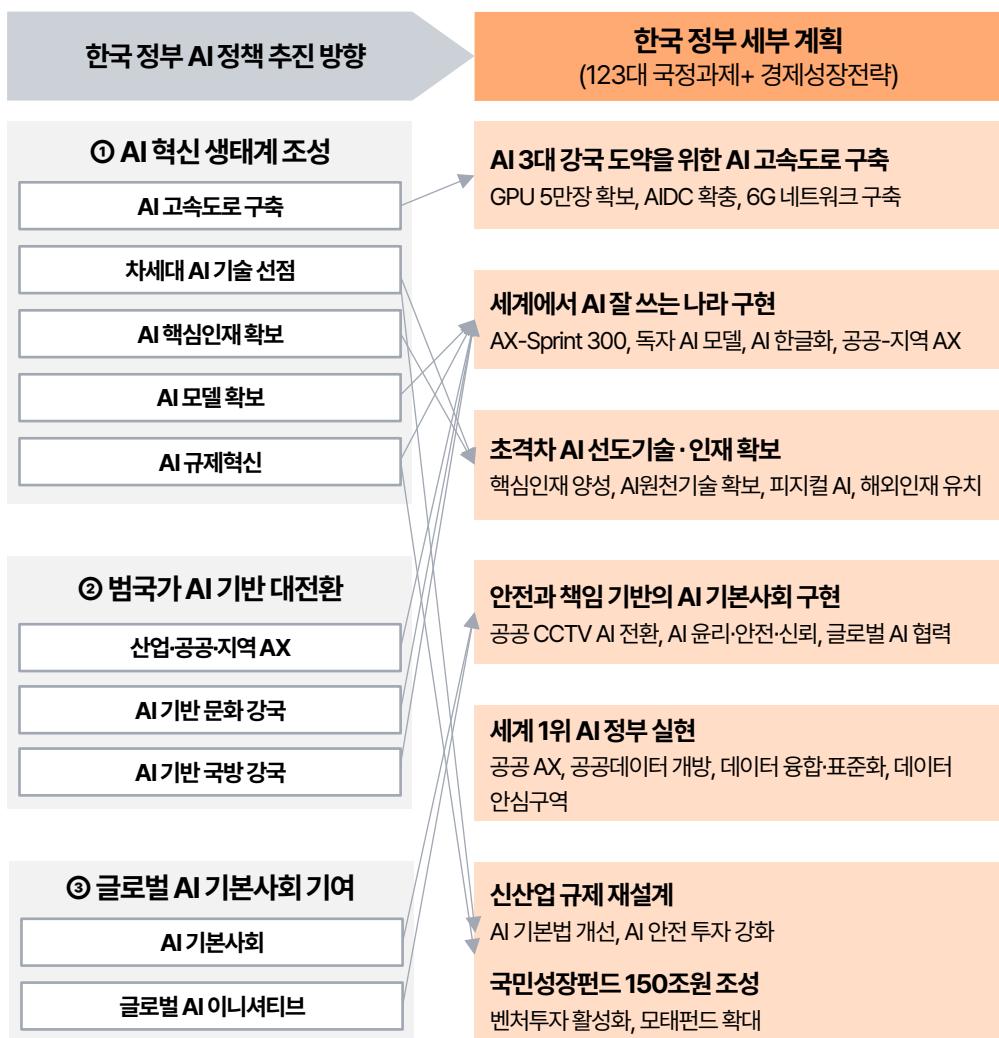
APEC 2025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하며,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히 정상회의 의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AI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SK그룹 등 주요 기업들과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조성하고 R&D 분야 재정 지원을 최대로 확대해 GPU 확보, AI 반도체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APEC에서 강조되는 AI 협력과 맞물려,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AI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국내에서도 AI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AI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글로벌 AI 규범 변화에 맞춘 제품·서비스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데이터센터·클라우드·반도체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자동화·스마트시티 산업과 AI 융합 기술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APEC 협력 프로젝트와 정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 AI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



2-2. APEC 2025의 핵심 무대: CEO 써밋

CEO 써밋 개요

일시	'25.10.29~10.31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주제	Bridge, Business, Beyond (3B) -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Bridge)
주요 참석자	- 트럼프 美대통령 개막 기조연설, 이재명 韓대통령 개막 특별연설 - 젠슨 황 CEO(엔비디아), 맷 가먼 CEO(AWS)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 등 1700여명 참석 전망

“글로벌 리더 한데 모이는 APEC CEO 써밋, 정책·투자·혁신이 만나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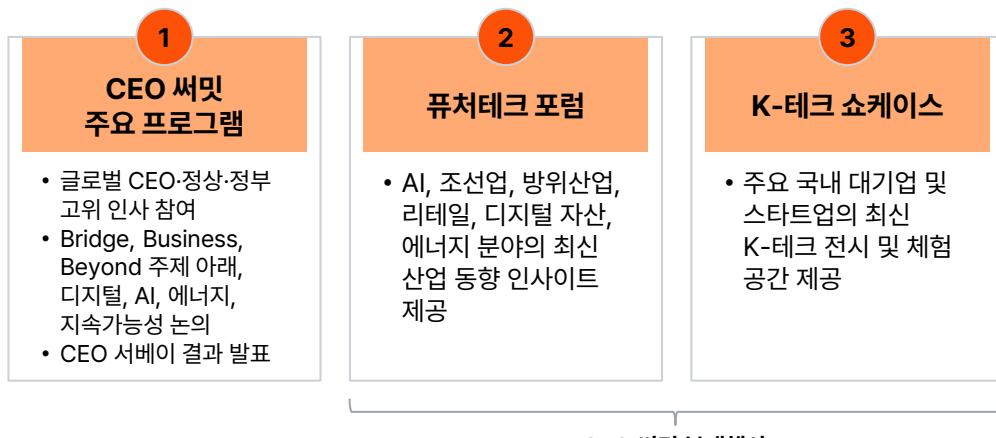
CEO 써밋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대표적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주관한다. **CEO 써밋은 민간 경제계의 목소리를 각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공식 창구로서, 글로벌 기업과 정책 리더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이번 CEO 써밋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로, 글로벌 CEO와 산업 전문가, 고위 경제 리더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실질적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올해 CEO 써밋은 '디지털 혁신과 AI'가 핵심 의제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전환, 헬스케어, 중소기업 포용 등 글로벌 경제 지형을 바꾸는 혁신 산업과 신흥 트렌드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주요 부대행사도 주목할 만 하다. **퓨처테크 포럼(Future Tech Forum)**에서는 AI, 방위산업, 조선업, 디지털 자산, 에너지, 리테일 테크 등 다양한 세션이 열려 글로벌 리더들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SK그룹이 주관하는 AI 세션에서는 국가 AI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K-테크 쇼케이스(K-Tech Showcase)**는 삼성, SK, LG,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빌리티, 로보틱스, AI, 메타버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해당 쇼케이스는 단순한 기술 홍보를 넘어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투자 협약을 위한 실질적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EO 써밋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정책·투자·혁신이 결합되는 무대**다. 기업은 이 자리에서 미래 규범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공급망·에너지·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CEO 써밋은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행사로, 기업이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CEO 써밋 주요 프로그램

이번 APEC CEO 써밋에서는 디지털 전환, AI, 에너지, 금융,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전략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중심으로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AI는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반도체·AI 산업 생태계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AWS의 맷 가먼 CEO 역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AI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써밋에서 AI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GPU 5만 장 확보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AI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SK·삼성 등 주요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울산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써밋은 한국의 AI 팩토리, GPU 인프라 협력, 생성형 AI 플랫폼 등 AI 비즈니스 생태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SK·삼성 간 HBM4*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는 등 실질적 사업 협력이 확정 및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 밖에도 금융,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미래 산업 전략 논의가 이어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도 CEO 써밋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비즈니스 외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번 CEO 써밋에 주목해 AI 중심 산업 재편, 반도체 공급망 전략, 글로벌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HBM4는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적층해 초고속 데이터 처리와 대역폭을 제공하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로, AI 반도체·GPU 등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의 핵심 부품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프로젝트 '루빈(Rubin)'에 적용되어 AI 반도체·고성능 컴퓨팅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임.

CEO 써밋 주요 프로그램 일정

일정 2025.10.29 (수) ~ 10.31(금) | 경주예술의전당

* 단, 28일은 '환영만찬' 진행

10월 29일 (수)

개막 기조 연설 (최태원 SK 회장):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AI 협력 비전 제시 전망

(세션) 글로벌 경제 이슈 및 도전과제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 등)

(세션) 디지털 전환 및 전자상거래 효율성 (로버트 포터 쿠팡 CGAP, 김상현 롯데그룹 부회장 등)

(세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금융 및 투자 전략 혁신 (아나 비에르데 World Bank 운영이사)

(세션) 통화의 미래와 글로벌 금융시장 (오경석 두나무 CEO)

(세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조석 HD현대 부회장)

10월 30일 (목)

(세션)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CEO)

(세션) 확장 가능하고 책임 있는 AI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앤서니 쿡 MS 부사장)

(세션) 더 나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글로벌 협력 (케빈 쉬 MEBO그룹 CEO)

(세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사장 등)

10월 31일 (금)

(세션) AI 기반 에너지 수요와 차세대 원자력의 역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등)

(세션) 아시아·태평양 LNG 연결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해럴드 햄 콘티넨탈 리소스 창업자 등)

(세션) 스마트 에너지를 위한 Agentic AI (박영준 한화큐셀 사장, 윤리희 호만 MS 부사장)

(세션) 과학기술 역할과 헬스케어 미래 (호아킨 두아토 J&J CEO)

(세션) 글로벌 경제의 다음 로드맵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특별연설) APEC 정상 연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협력 최근 동향

협력 기업	협력 내용	기대효과
SK그룹, A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AWS 약 7조원 투자해 울산 미포산업단지 일대에 103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27년 말 가동 예상) AI 데이터센터 내에 약 6만개 GPU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AI 벨트 조성 국내 AI 전환 가속화 글로벌 AI 생태계와 연결 강화
삼성그룹, 오픈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AI가 참여하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 전자가 월 최대 D램웨이퍼 90만장 공급 파트너 참여 삼성SDS와 오픈AI가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오픈AI와 함께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주도 한미 AI 경제동맹 강화 기업용 AI 서비스 사업 진출 확대
SK그룹, 오픈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AI가 참여하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 하이닉스가 월 최대 D램웨이퍼 90만장 공급 파트너 참여 SK텔레콤과 오픈AI가 한국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주도 한미 AI 경제동맹 강화 아시아 AI 허브 구축
KT, 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MS의 AI 모델을 KT의 IT 서비스에 접목 AI 네트워크 신기술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AI 생태계 강화 KT의 AI 서비스 경쟁력 제고 글로벌 기술과의 융합 통한 혁신 촉진

2

퓨처테크 포럼

CEO 써밋의 핵심 부대행사인 퓨처테크 포럼은 한국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로, AI, 조선업, 방위산업, 리테일, 디지털 자산, 에너지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전략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AI 세션에서는 SK그룹이 국가 AI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AWS와 함께 추진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및 반도체·에너지 솔루션을 공유한다. 조선업에서는 HD현대가 스마트십과 친환경 선박, 디지털 트윈 기반 혁신을 소개하며, 방위산업에서는 AI·자율 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방산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리테일과 디지털 전환 세션에서는 AI·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혁신과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이 논의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업비트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결제, 금융 포용을 주제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한다. 에너지 세션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가 LNG, ESS, 재생에너지, 수소, SMR 기반의 종합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및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참석해 AI 반도체·클라우드 협력, 디지털 무역·금융 규범, 에너지·방산·조선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퓨처테크 포럼 주요 일정 및 내용

* 퓨처테크 포럼은 CEO 써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본 행사보다 하루 먼저 개최될 예정

10월 27일 (월)

조선업	방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 HD현대•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대 (존김, Anduril Industries 부사장 등)- 조선소의 미래: AI 기반 제조 혁신 (조 보만, Simence CTO 등)- 조선 분야에서의 한·미 전략적 협력 (에릭 츄닝,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 한화그룹•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K방산 경쟁력 소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AI 등 첨단 기술 발전 방향

10월 28일 (화)

AI	리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 SK•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생태계 구축 (최태원 SK 회장)- 앞으로의 길: AI와 지역 혁신 (매트 가먼, AWS CEO 등)- 한국을 위한 OpenAI: 함께하는 미래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 한국형 플스택 AI와 그 교훈 (최수연, 네이버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혁신 트렌드와 리테일의 미래 전망 (데이비드 벨, IFV 대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테일 미래 (르노 드 바르부아, GSI AISBL CEO)- 리테일 기업 혁신 사례: 한미일중 중심으로 (김호민, AWS 리테일 & CPG 사업 개발 총괄 등)

10월 30일 (수)

디지털자산	미래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사: 두나무•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글로벌 금융과 규제의 연결- 제도화와 융합: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의 공존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세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지역의 에너지 과제 해결 방안- 산업 전환을 위한 무탄소 탄력 에너지

K-테크 쇼케이스

K-테크 쇼케이스는 APEC CEO 써밋 기간(10월 28~31일) 경주엑스포 대공원 야외 파빌리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 전시·체험 행사로 한국의 혁신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 SK,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과 약 1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모빌리티·로보틱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메타버스·XR, 바이오·헬스테크 등 차세대 기술을 전시하고 실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중심으로 반도체(HBM4), 냉각·운영·보안 등 AI 인프라 전 영역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현대차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LG는 AI 가전과 스마트홈 생태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구성되며, 이차전지·철강·에너지·반도체·방산 등 경북의 대표 산업과 함께 화장품, 웹툰, 드라마, 캐릭터 등 K-콘텐츠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미래산업관에는 30여 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행사 기간 동안 기업 설명회와 투자 상담회가 진행되며 K-라운지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MOU 체결 및 투자유치 협약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 관점에서, 이번 쇼케이스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하며, 투자 유치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테크 쇼케이스가 개최되는 파빌리온동 전경 (경주엑스포공원 내 위치)



자료: 경주시

3. 한국에의 영향 점검

APEC 2025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서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

직간접 경제효과 총 7.4조 원 규모 기대

- (대한상의와 딜로이트 분석) 단기 직접효과(행사 운영, 관광, 숙박, 소비 등) 3.3조원
+ 중장기 간접효과(브랜드 가치 상승, 투자유치, SOC인프라, 수출 확대 등) 4.1조원 예상
*경북연구원 초기 분석인 1.8조원 수준에서 크게 상향 조정
- 한편, 경주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인근지역까지 관광, 숙박 수요 확대 기대
- 일자리 창출 효과: 약 2만 4천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 기대. 특히 지역 청년층과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긍정적 효과 기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 APEC CEO 써밋, K-테크 쇼케이스, 퓨처테크 써밋 등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 및 혁신 역량 홍보

무역·투자 유치 및 수출 판로 확대 가능성

- APEC 회원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수입·투자의 중요한 대상국들이므로(한국 수출의 75%, 수입의 68%, 외국인 직접 투자의 46.5%, 해외 직접투자의 58% 수준이 APEC 회원국간의 거래) 이번 회의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사회적 측면

경주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효과

- 경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필요. 지역 공동체의 국제행사 운영 역량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 경주IC, 김해공항, 동국대병원 등 교통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장기적 관점에서 경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

- 불국사, 석굴암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한국 전통문화 세계에 소개

정치적 측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한국의 외교 리더십 강화 및 국제 위상 제고

-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 주도
- 글로벌 협력의 중심국가로서 위상 재확인 자리
- 경주의 '화백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형 민주적 협의모델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

미-중-러 외교 구도 속 전략적 입지 구축

- 미·중 정상의 만남 가능성 등 한반도가 외교의 중심지로 부상 및 한국의 중재자 역할 주목

4. 결론 및 시사점

APEC에서 논의되는 의제와 합의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와 CEO 써밋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복원력, 친환경 성장 등은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중장기 전략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APEC에서 제시되는 정책·산업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APEC 2025에서 기업이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와 대응 방향은 무엇일까?

포인트 1.

주요국 간 통상 협상 변화 파악해 중장기 사업 방향에 반영

이번 APEC에서는 미국-중국, 미국-한국, 미국-일본 등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투자, 반도체·배터리·회토류 등 핵심 소재와 관련된 통상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수출입 조건, 공급망 구조,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주요국 간 협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세 변화, 투자 조건,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통상 협상 결과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자동화 등을 통해 인건비가 높은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의 손익을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포인트 2.

AI·디지털 전환 기류 읽고, 글로벌 협력 전략 구체화

APEC 2025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AI를 통한 경제 전환이 그 어떤 의제보다 뜨겁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APEC을 발판 삼아 글로벌 AI 시장에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미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AI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SK, 삼성 등 주요 한국 기업도 오픈AI, AWS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는 APEC에서 강조되는 AI 협력 기조와 맞물려 한국의 AI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정부·글로벌 기업 간 협력 기류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AI·반도체·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 투자, 기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디지털·AI 규범과 정책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APEC 2025에서는 책임있는 AI 활용도 강조될 예정이라, 기업은 이를 고려한 사업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 3.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논의 흐름 주목해 기업 전략에 적극 반영

APEC 2025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에서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확대, 전력망 현대화 등 친환경 기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 등 글로벌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정책 변화와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10W-RP-120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